

##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경 욱<sup>†</sup>

한양대학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진로성취목표에 의해 매개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는 정적상관을,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결정수준과 숙달목표와는 부적상관을, 수행목표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진로성취목표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결정수준에는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만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진로성취목표에 의해 매개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변인 검증을 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진로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하고 있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역시 진로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진로성취목표,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 본 연구를 도와주신 한양대학교 장성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김경욱,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133-070)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Tel : 016-704-6835, E-mail : kaykim25@hanmail.net

대학생에게 있어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며 가장 큰 고민의 내용이기도 하다. 진로를 결정할 때, 학생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구상하고 목표를 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해 나가게 된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화됨으로 그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확실한 사회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와 예측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지에 대한 중요한 선택이며 결정이므로 진로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ntolerance of Uncertainty)은 인지, 정서, 행동적 수준에서 불확실한 상황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반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편향(cognitive bias)으로 정의될 수 있다(Dugas, Hedayati, Karavidas, Buhr, Francis & Phillip, 20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못견디하며 모호한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한다(Dugas et al., 2005; MacLeod & Rutherford, 2004), 이는 여러 가지 신체적 스트레스 반응과 걱정,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반응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주로 걱정의 발생과 지속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Freeston, Rheume, Letarte, Dugas, &

Ladouceur, 1994),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걱정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Buhr & Dugas, 2002; Dugas, Freeston, & Ladouceur, 1997).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애매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Russell & Davey, 1993), 자극이 애매할수록 지연 행동을 보이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etzger, Miller, Cohen, Sofka & Brokovec, 1990).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 것도 확실치 않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불확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고 위협적으로 지각할 경향성이 높을 것이다. 이들에게는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것이 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에서도 지연행동과 진로결정의 회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상기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을 상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다양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진로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그 가운데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선행변인으로 많이 다루어진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Bandura, 1977), 특히 진로영역에서는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수행성취, 행동지속성, 진로미결정과 탐색적인 행동에 대한 예언변인

으로써 다루어져왔다(Lent, 2005).

먼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Blustein(1989)과 Bandura(1997)는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즉 진로의사결정 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된 정보탐색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국내 연구들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중, 2005; 김수리, 2004; 이명숙, 2003). 여기서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인지나 태도적인 차원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행동 및 진로결정 이후에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등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국내에서 이루어진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성숙도와 같은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낮고(김선중, 2005; 이명숙, 200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김선중, 2005; 김수리, 2004; 이명숙, 2003),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김남홍, 2001; 김형균, 2002; 이보미, 2006),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문선아, 2000; 조지혜, 2007)는 것이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배종훈, 2001; 유지선, 2004; Betz, Klein, & Taylor, 1996; Taylor & Betz, 1983; Taylor & Popma, 1990)는 대체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편이다. 진로미결정은 진로상담 분야의 중심되는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이나(Gati, Krausz & Osipow, 1996), 진로미결정에 대한 일

치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초기 진로미결정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미결정을 부적응적인 것으로 단정짓고, 진로결정자와 미결정자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물론, 진로미결정자 내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자(undecided)와 성격적으로 결단성이 부족하여(indecisive)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만성적인 미결정자(chronic indecision)로 구분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어왔다(Hartman, Fuqua, & Hartman, 1983; Slaney, 1988). 그러나 진로미결정을 이처럼 결정 對 미결정, 즉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서(Larson, Heppner, Ham, & Dugan, 1988), 진로미결정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표현양상과 원인을 가지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Fuqua, Blum, & Hartman, 1988). 그동안 국내에서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정애경(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체감이나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변인이 진로미결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온 자기효능감이 전술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함께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을 얼마나 예언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준비해가는 과정은 중요한 성취 과제로 볼 수 있다. 즉,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스스로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청년기에 완수해야 할 중요한 성취 과제 가운데 한가지인 것이다. 그동안 성취과제와 관련된

어 여러 가지 동기적 연구가 있어왔다. 특히 Murray의 욕구체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성취동기는 만족스러운 것을 수행하려는 동기로 (Atkinson, 1958), 개인의 포부수준, 노력 및 지구력 등을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한덕웅, 1993). 실제 성취행동은 실생활의 여러 측면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전수현, 1998). 성취동기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이론가들은 동기 성향과 행동 사이를 매개해주는 구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성취목표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성취행동이 일어나는지 여부보다는 성취행동이 발생하는 이유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이종욱, 2007). 즉 성취목표는 자신의 유능감과 관계된 과업을 수행할 때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나 목적(Maehr, 1989)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성취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경험하고, 행동하는 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Nicholls, 1989). 그동안 진로와 관련하여 성취동기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고(이재창, 유계식, 1997),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문선아, 2000; 조지혜, 2007), 직접적으로 진로성취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진로영역에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세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진로선택과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고 있다(Lent, Brown, & Hackett, 1994). 여기서 목표는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명확한 목표설정과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이끌어낸다고 본다(Betz & Vuyten, 1997). 이처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 가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진로결정과정에서 목표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준비와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성취과제에서 진로성취목표가 갖는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성취목표는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용어로 분류되어 왔는데, 2가지 유형의 성취목표가 동기와 수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Ames & Archer, 1988). 즉, 유능감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숙달목표(mastery goal)와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하는 수행목표(performance goal)가 그것이다. Elliot와 Church(1997)는 성취장면에서의 동기는 성공을 추구하거나 실패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접근동기의 측면만을 다루었다고 지적하면서 성취목표를 숙달목표(mastery goal),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approach goal), 수행회피목표(performance-avoidance goal)로 개념화하였다. 즉, 수행목표를 유능하다는 평가를 얻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와 능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로 나눈 것이다. 이러한 성취목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성취목표의 결정요인 또는 선행변인에 대한 것들과 성취목표의 효과, 즉, 결과변인들에 대한 것들로 범주화될 수 있다(장성수, 1998). 성취목표의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었던 개인적 변인에는 지능에 대한 신념(Goodnow, 1980; Leggett, 1985; Sternberg, Conway, Ketron & Bernstein, 1981), 성취동기, 유능감 기대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Elliot & Church, 1997) 등이 있다. 이 가운데 Elliot와 Church(199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취동기와 유능감 기대(competence expectancy)가 높을수록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유능감 기대가 낮을수록 수행회피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행접근목표는 성취동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여 이 2가지 동기적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목표로 확인되었다. 한편 성취목표의 결과변인으로 실패나 부정적인 피드백에 직면했을 때의 행동적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는데 즉, 성취목표에 따라 과제선택이 달라졌으며(Elliott & Dweck, 1988), 실패에 직면했을 때의 수행에도 성취목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ver, Peterson, Follansbee & Scheier, 1983; Deci & Ryan, 1980).

전술한 바와 같이 성취목표의 선행변인으로 다루어진 유능감 기대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자기효능감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따라서 유능감 기대가 성취목표에 영향을 주고 성취목표는 이후 행동적 반응을 결정짓는다는 이들의 연구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가 목표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목표가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회인지 진로이론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취목표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울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을 유발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지연행동과 의사결정회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러한 관계 역시 성취목표를 매개로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방 법

### 조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H대학의 계절 학기 수강생 남녀 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에 누락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한 총 20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135명(65.2%), 여자 71명(34.3%)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16명(7.7%), 2학년 39명(18.8%), 3학년 80명(38.6%), 4학년 71명(34.3%)으로 계절학기 특성상 3학년이상의 고학년 분포가 높은 편이었다.

### 측정도구

####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 척도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정은(1997)의 것을 김아영(1997)이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4개 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 5점 리커트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불확실함을 참을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IUS)는 Freeston, Rheaume, Letarte, Dugas 및 Ladouceur(1994)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를 Buhr와 Dugas(2002)가 영

문판으로 번역하여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국내에서 최혜경(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모호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행동적 반응, 불확실한 상황의 영향, 미래 사건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불확실함을 못 견디는 성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4였다.

### 진로성취목표

현재까지 진로장면에서의 성취목표를 재는 척도가 없으므로, Elliot와 Church(1997)가 개발한 성취목표 척도를 기업조직 장면에 맞게 강내경(1998)이 변형한 문항과 장성수(1998)가 번안한 문항을 바탕으로, 진로 장면에 맞추어 연구자가 수정한 문항을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수료한 상담심리전문가 2인과 관련전공 교수 1인이 문항검증을 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 장면에서의 개인의 성취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3가지 목표로 각각 6문항씩 총 18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18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각회전법(varimax)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고 그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숙달목표와 수행접근, 수행회피 목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성취목표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숙달목표 .82, 수행접근목표 .81, 수행회피목표 .83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 진로준비행동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진로

준비행동 질문지'에 이명숙(2003)이 두 문항을 추가한 진로준비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2였다.

###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chier(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검사(Career Decision Scale; CDS)를 고휘자(1992)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성을 측정하는 2문항과 진로미결정의 전제조건을 확인하고 미결정수준을 측정하는 16문항, 자유응답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전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으므로, 확신성 문항과 자유응답문항을 제외한 미결정성 문항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전체 문항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 결 과

### 전체 변인들간 상관관계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U; Intolerance of Uncertainty), 진로성취목표와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계수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각 변수의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불

표 1.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IU), 진로성취목표,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 간의 상관계수( $r$ ) 및 평균과 표준편차

	1	2	3-1	3-2	3-3	4	5
1 자기효능감	-						
2 IU	-.47***	-					
3-1 숙달목표	.41***	-.12*	-				
3-2 수행접근목표	.08	.26***	.39***	-			
3-3 수행회피목표	-.50***	.48***	-.27***	.21**	-		
4 진로준비행동	.29***	-.06	.30***	.16*	-.31***	-	
5 진로결정수준	.34***	-.34***	.40***	-.03	-.53***	.54***	-
평균(표준편차)	82.86 (10.81)	71.94 (16.12)	25.69 (3.19)	23.53 (4.02)	18.52 (5.23)	53.92 (12.86)	57.80 (12.12)

\*  $p < .05$  \*\*  $p < .01$  \*\*\*  $p < .001$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47의 높은 역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는 정적 상관을,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숙달목표와는 부적상관을,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진로결정수준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진로성취목표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숙달목표는 수행접근목표와는 정적상관을,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간에는 .21의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는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수행회피목표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숙달목표는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수행회피목표는 부

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수행접근목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성취목표에 미치는 영향

이처럼 단순상관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성취목표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로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예언력의 정도와 이들 변인 각각이 진로성취목표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고, 진로성취목표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숙달목표와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표 2. 진로성취목표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IU)의 중다회귀분석결과 요약

종속변인	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숙달목표	자기효능감	.13	.02	.44		5.98**
	IU	.01	.02	.07		.97
$R=.41 \quad R^2=.17 \quad F(2, 200)=20.02^{**}$						
수행접근목표	자기효능감	.10	.03	.26		3.48*
	IU	.10	.02	.39		5.15**
$R=.35 \quad R^2=.12 \quad F(2, 200)=13.99^{**}$						
수행회피목표	자기효능감	-.17	.03	-.36		-5.38**
	IU	.10	.02	.30		4.59**
$R=.57 \quad R^2=.32 \quad F(2, 200)=46.92^{**}$						

\*  $p < .01$  \*\*  $p < .001$

력 부족에 의해 각각 변량의 17%, 12%, 32%가 설명되었다. 이 때,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각각의 BETA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 두 변인이 수행목표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예언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단순상관분석에서 수행접근목표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r=.08$ ), 중다회귀분석결과 수행접근목표에 미치는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상관분석에서 자기효능감과 수행접근목표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억압변수(suppressor variable)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단순상관분석에서는 숙달목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산출되었으나( $r=-.12$ ),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숙달목표를 독립적

으로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취목표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표 1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 보면, 진로성취목표는 진로준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이 중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는 진로결정수준과도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진로성취목표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예언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진로성취목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성취목표에 의해 변량의 17%, 진로결정수준은 36%가 설명됨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진로준비행동에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



표 3.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성취목표 중다회귀분석 결과 요약

종속변인/독립변인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t
		B	표준오차	베타		
진로 준비행동	숙달목표	.62	.30	.15		2.04*
	수행접근목표	.53	.24	.17		2.22*
	수행회피목표	-.76	.18	-.31		-4.32**
$R=.41 \quad R^2=.17 \quad F(3, 203)=13.81^{**}$						
진로 결정수준	숙달목표	1.19	.25	.31		4.71**
	수행접근목표	-.18	.20	-.06		-.91
	수행회피목표	-1.01	.15	-.43		-6.91**
$R=.60 \quad R^2=.36 \quad F(3, 203)=37.36^{**}$						

\*  $p < .05$  \*\*  $p < .001$

피목표의 BETA값이, 진로결정수준에는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의 BETA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단순상관분석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 진로성취목표를 매개로

먼저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성취목표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측변인이 결과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고, 둘째, 예측변인이 매개변인과 유의한 관계에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결과변인과 유의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행접근목표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상기한 조건들 가운데 세 번째 조건(수행접근목

표가 진로결정수준과 유의한 관계에 있어야 함)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 수행회피목표와 숙달목표에 의해 설명되는 진로준비행동의 전체설명력은 15.6%로 나타났고, 모델 2에서 자기효능감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진로준비행동의 설명력은 16.2%로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진로성취목표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성취목표가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사이를 매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표 4.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약

		R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change
진로준비행동	모델 1	.39	.156	.156	18.52**
	모델 2	.40	.162	.006	1.43
진로결정수준	모델 1	.59	.352	.352	54.05**
	모델 2	.59	.352	.000	.03

\*\*  $p < .001$

주. 모델 1: 수행회피목표, 숙달목표 투입 모델 2: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

나타났다. 모델 2에서 자기효능감이 추가로 투입되었을 때,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전체 설명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진로성취목표가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을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로성취목표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 지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r = -.06$ ), 수행접근목표 역시 진로결정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03$ ). 따라서, 이들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를 매개하는 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상정된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추가로 투입하여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1에서 수행회피목표와 숙달목표에 의해 설명되는 진로결정수준의 전체설명력은 35.2%로 나타났고, 모델 2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추가하였을 때, 이들 예언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진로결정수준의 설명력은 36.1%로 설명력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성취목표의 효과를 통제하였을 경우,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표 5.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요약

		R	R <sup>2</sup>	R <sup>2</sup> change	F change
진로결정수준	모델 1	.59	.352	.352	54.48**
	모델 2	.60	.361	.010	3.06

\*\*  $p < .001$

주. 모델 1: 수행회피목표, 숙달목표 투입 모델 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추가로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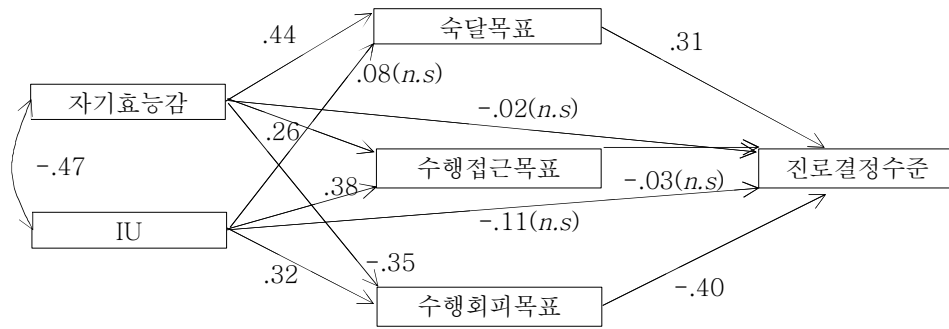


그림 1.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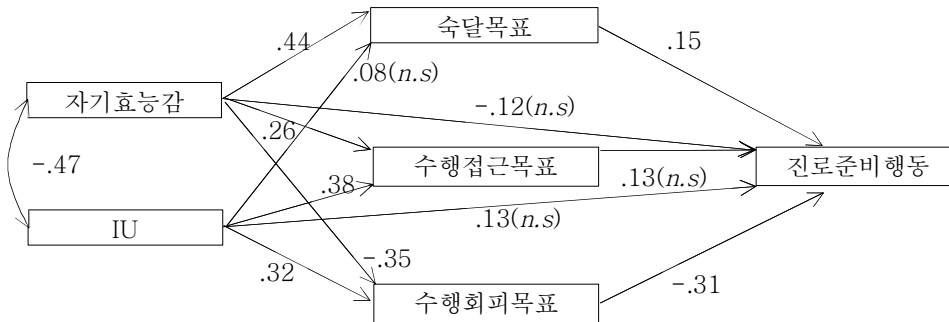


그림 2.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된 경로 계수

는 진로성취목표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 사이를 완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Amos 4.01 version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모형을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이 가운데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취목표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수행접근목표

와 수행회피목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역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사라짐으로 이들의 관계도 진로성취목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진로성취목표가 매개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진로결정수준:  $\chi^2(df=3, N=206)=54.21, p<.001$ ; CFI=.99; TLI=.92; NFI=.99; RMSEA=.20; 진로준비행동:  $\chi^2(df=3, N=206)=54.19, p<.001$ ; CFI=.99; TLI=.91; NFI=.99; RMSEA=.20). 모형 적합도에서 RMSEA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성취목표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은데, 이들간의 관계가 제시된 두 모델에서 잘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 논 의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간의 관계에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져 왔던 진로성취목표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 모두와 정적상관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김선중, 2005; 김수리, 2004; 이명숙, 2003)과 진로결정수준이 높다(Taylor & Betz, 1983; Taylor & Popma, 1990)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취목표 가운데 숙달목표와는 정적 상관을,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Elliot 등(1997)과 장성수(1998)의 연구에서 유능감 기대가 숙달목표와는 정적으로,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결정수준과는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으나,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본 연구는 없으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높은 상관을 보고하고 있는 걱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국이 애매하고 정답이 명

확하지 않을 때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Metzger et al., 1990; Tallis, Eysenck, & Mathews, 1991), 이는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결정수준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불확실함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진로결정도 잘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을 저해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이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걱정과 불안을 설명하는 예언변인임을 감안하여 본다면, 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문선아(2000)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선아(2000)는 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점을 현실적인 경기불황과 어지러운 사회문제로 불안과 상관없이 개인의 의욕저하로 인한 수행감소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후속연구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성취목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숙달목표와는 부적상관을,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와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숙달목표가 낮아지고, 능력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으려는 수행접근목표와 비호의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성취목표와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로성취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예언력의 정도와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숙달목표에는 자기효능감이,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는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두 변인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성취목표를 설명하는데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두 변인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진로성취목표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숙달목표와 수행목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결정수준에는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만이 예언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 진로를 통해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실패나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피하려는 수행회피목표의 추구가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진로성취목표에 의해 매개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진로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고 설명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자기효능감이 숙달목표를 높이고, 수행회피목표를 감소시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 진로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유능감을 드러내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므로 그에 따른 진로준비행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확고한 진로결정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진로성취목표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버티려는 힘이 약할수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보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을 피하려는 근시안적인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더 많이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난(Dugas et al., 2005)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추론해 본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내담자들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위협적으로 지각하고 염려함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를 지지하는 바, 진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미래를 얼마나 불확실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높은지를 탐색함과 아울러 이를 버틸 수 있는, 즉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에서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강한 역상관( $r=-.47$ )을 보이고 있으므로, 진로 상담과정에서 내담자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긴 안목으로 자신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내담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진로

성취목표의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은 노력과정에서 즐거움과 자부심을 경험하고(Deci & Ryan, 1980; Lepper, 1981),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과제수행을 지속한다고 밝히고 있다(Ames, 1984). 이를 본 연구 맥락에서 본다면 숙달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여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행을 해냄으로써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로성취목표가 이처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다루어 온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취목표설정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하여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역시 진로성취목표를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현장이나 학교장면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내담자들의 진로성취목표를 잘 탐색하고 이들이 수행회피목표보다는 숙달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즉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로결과와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바,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가 학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진로성취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자가 이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척도개발과 함께 타당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취목표를 진로연구 영역에 도입하여 시도한 것은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진로성취목표가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진로성취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다른 선행변인과 결과변인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내경 (1998). 성취목표가 조직몰입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홍 (2001).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중 (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리 (2004).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아영 (1997). 자기효능감 및 하위척도들의 학교 별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미간행본.
- 김형균 (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선아 (2000). 불안과 성취동기가 대학생의 진로 태도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중훈 (2001). 진로미결정 유형별 진로결정변인과 성격특성의 차이.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선 (2004). 여대생의 진로미결정과 애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 (2003).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 장애지각·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보미 (2006).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의식 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유계식 (1997). 대학생의 성공공포와 성취동기 및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 259-288.
- 이종욱 (2007). 성취목표지향성 개념의 재분화.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성수 (1998). 성취목표와 학업성적 피드백이 학과목에 대한 무기력, 내재적 동기 및 성취기대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6, 129-148,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전수현 (1998). 기업조직에서 성취목표의 결정요인과 그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지혜 (2007). 성취동기,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애경 (2007). 진로미결정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메타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은 (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경 (1997). 만성적 근심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역기능적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덕웅 (1993). 조직행동의 동기이론. 서울: 법문사.
- Ames, C. (1984). Achievement attributions and self-instructions under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goal structur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478-487.
- Ames, C., & Archer, J. (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Atkinson, J. W. (1958). *Motives in fantasy, action, and society*. Princeton, NJ; Vand Nostand Co. Inc.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short form of the Career

-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47-57.
- Betz, N. E., & Vuyten, K. K. (1997). Efficacy and outcome expectations influence career exploration and decidednes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179-189.
- Blustein, D. L. (1989). The role of goal instability and career self-efficacy in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5, 194-203.
- Buhr, K., & Dugas, M. J. (2002). The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English versio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0, 931-945.
- Carver, C. S., Peterson, L. M., Follansbee, D. J., & Scheier, M. F. (1983). Effects of self-directed attention on performance and persistence among persons high and low in test anxiet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7, 333-354.
- Deci, E. L., & Ryan, R. M. (1980). The empirical exploration of intrinsic motivational processes. In L. Berkowitz,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pp.39-80). New York: Academic Press.
- Dugas, M. J., Freeston, M. H., & Ladouceur, R. (1997).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problem orientation in worr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593-606.
- Dugas, M. J., Hedayati, M., Karavidas, A., Buhr, K., Francis, K., & Phillips, N. A. (2005).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nformation processing: Evidence of biased recall and interpretation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 57-70.
- Elliot, A., & Church, M. A. (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461-475.
- Elliott, E. S., & Dweck, C. S. (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 Freeston, M. H., Rheaume, J., Letarte, H., Dugas, M. J., & Ladouceur, R. (1994). Why do people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91-802.
- Fuqua, D.R., Blum, C.R., & Hartman, B. W. (1988). Empirical support for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career indecision.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6, 364-373.
- Gati, I., Krausz, M., & Osipow, S. H. (1996). A taxonomy of difficulties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510-526.
- Goodnow, J. J. (1980). Everyday concepts of intelligence and its development. In N. Warren(Ed.), *Studi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2(pp.191-219). Oxford, England: Pergamon Press.
- Hartman, B. W., Fuqua, D. R., & Hartman, P.T. (1983). The predictive potential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in identifying chronic indecision.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1, 103-108.
- Larson, L. M., Heppner, P. P., Ham, T., & Dugan, K. (1988). Investigating multiple subtypes of career indecision through cluster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5, 439-446.
- Leggett, E. L. (1985). Children's entity and incremental theories of intelligence:



- Relationships to achievement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Boston.
- Lent, R. W. (2005). A social cognitive view of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pp.101-127). NJ:Wiley.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Lepper, M. (1981).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children: Detrimental effects of superfluous social controls. In W. W. Collins(Ed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pp.155-214). Hillsdale, NJ: Erlbaum.
- MacLeod, C., & Rutherford, E. (2004). Information-processing approach: Assessing the selective functioning of attention, interpretation, and retrieval. In R. G. Heimberg, C. L. Turk & D. S. Mennin(Eds.),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dvances in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Mahr, M. L. (1989). Thoughts about motivation. In C. Ames & R. Ames (Eds.), *Research on motivation in education: Goals and motivation*, 3(pp.299-315). NY: Academic Press.
- Metzger, T. J., Miller, M. L., Cohen, M., Sofka, M., & Brokovec, T. D. (1990). Worry changes decision making: The effect of negative thoughts on cognitive process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 78-88.
- Nicholls, J. G. (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 (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thon Consulting and Press.
- Russell, M., & Davey, G. C. L.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event measures and anxiety and its cognitive correla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317-322.
- Slaney, R. B. (1988). The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decision making*(pp.33-76).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rnberg, R., Conway, B. E., Ketron, J. L., & Bernstein, M. (1981). People's conception of intellig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7-55.
- Tallis, F., Eysenck, M. H., & Mathews, A. (1991). Elevated evidence requirements and worr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 21-2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8, 328-437.
- Taylor, K. M. & Popma, J. (1990).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s among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career salience, locus of control, and vocational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 17-31.

원 고 접 수 일 : 2009. 2. 26

수정원고접수일 : 2009. 4. 17

게재결정일 : 2009. 5. 16

**The Effect of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Achievement Goals**

**Kyung-Wook, Kim**

Hanyang University

The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achievement goals on the path from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astery goal, performance-avoidance goal,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whereas intolerance of uncertainty was correlated with achievement goals and career decision level. Second, career achievement goals had significant relation to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 level. Third, career achievement goals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behavior as well as career decision level. It also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career decision level.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self-efficacy, intolerance of uncertainty, career achievement goal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 level*

부록. 진로성취목표의 요인구조

	문 항	요인부하량		
		1	2	3
숙달목표	1. 내가 원하는 진로의 경쟁률이 치열하더라도 도전해 보겠다	<b>.759</b>	.121	-.140
	2. 나는 내 진로분야에서 정통한 사람이 되고 싶다	<b>.744</b>	.119	.105
	3. 나는 직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b>.734</b>	.226	-.077
	4. 나는 직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싶다	<b>.734</b>	.143	-.081
	5. 나는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b>.716</b>	.150	-.188
	6. 나는 원하는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한다	<b>.384</b>	.319	-.281
수행접근목표	1. 내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106	<b>.759</b>	.275
	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다	.172	<b>.737</b>	.062
	3. 내가 결정한 진로에 대해 교수님, 부모님,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275	<b>.693</b>	.117
	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진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052	<b>.690</b>	-.092
	5.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다	.370	<b>.656</b>	.016
	6. 내가 결정한 진로를 통해서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267	<b>.642</b>	.114
수행회피목표	1. 졸업이후 취직을 못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132	.135	<b>.816</b>
	2. 졸업 후 취업하지 못할까봐 두렵다	-.082	-.084	<b>.776</b>
	3. 취업관련해서 내가 부모나 주위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	.003	.016	<b>.759</b>
	4. 나는 잘못된 진로결정을 내릴까봐 걱정할 때가 있다	.056	.058	<b>.690</b>
	5. 나는 남들보다 좋지 못한 직장에 가게 될까봐 걱정하는 편이다	-.271	.397	<b>.639</b>
	6. 내가 취직을 하려는 이유는, 졸업 후 백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423	.161	<b>.555</b>